****

**선교 활동 보고**

**구조적인 인종차별에 대항해 '행동하기'**

하나님께서 인생의 홍수와 불을 지날 때에 함께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을 때, 화재로 집이 폭삭 내려 앉은 드렐에게는 별로 위안이 되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더 나빠진 것은 무너진 집을 나와 거주하고 있던 차의 바퀴에서 공기가 빠졌을 때였습니다. 바로 그 때 지역 목사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그에게 실재로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스티븐 헤링 목사는 은퇴 후 노스 캐롤라이나 주 스코트랜드 넥과 타보로에 있는 작은 장로교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그는 타보로에서 아들과 부인과 함께 대형 쓰레기 처리업체와 청소 비지니스를 운영합니다. 그는 휴대용 에어 컴프레셔를 빌려주어 트렐을 도울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트렐은 화재에 의해서 집을 잃었지만, 타보로나 프린스빌 같은 인근 지역의 많은 이들은 기후 변화 때문에 집을 잃고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프린스빌의 특이한 역사는 지도상에서는 많이 지워져버렸지만, 사실 이 곳은 해방된 아프리카계 미국인이 도시를 세우고 정착한 가장 오래된 곳 중 하나입니다.

프린스빌에서 진행되는 스티브 목사의 사역은 주로 홍수로 피해를 입은 건물에서 자원을 해체 및 추출하고, 그 건물을 재건하여 마을의 유산을 보존하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프린스빌의 역사를 보전하는 것은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구조적인 인종차별과 만연한 빈곤에 이중으로 영향받아 소외 계층이 된 주민들이 마을을 파괴하는 몇 차례의 허리케인을 겪은 후, 계속해서 다른 곳으로 이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평화 증진자로서 스티브 목사의 소명은 구조적 인종차별 문제를 해결하고 고향인 노스 캐롤라이나에서 [기후 변화](https://www.presbyterianmission.org/ministries/environment/environmental-issues/climate-change/)의 재앙적인 영향을 완화함으로써, 평화로 가는 길을 추구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사역은  [지구촌 선교와 평화 특별헌금](https://pma.pcusa.org/donate/make-a-gift/gift-info/PG999999/)의 지원으로 가능합니다. '지구촌 선교와 평화 특별헌금'은 일반적으로 세계 성만찬 주일에 하며, 올해는 10월 1일입니다.

[지구촌 선교와 평화 특별헌금](https://specialofferings.pcusa.org/offering/peace-global-witness/)은 금액의 절반이 전 세계의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단 차원의 평화 증진과 세계 선교 노력에 쓰인다는 점에서 독특합니다. 25%는 교회 인근 지역의 평화와 화해 활동을 위해 개체교회에서 사용하고, 25%는 더 넓은 지역의 유사한 사역을 위해 중간 공의회로 보내집니다. (인근 지역 평화 증진 사역을 위해 여러분 교회에 할당된 헌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이야기하십시오.)

평화 증진 사역이 맞서는 가장 큰 도전들 즉, 가난, 인종차별, 기후 변화, 이주 등이 서로 교차하는 지점이 마태복음 25장 사역 교회의 주안점들이기도 합니다.

스티브 목사는 교회의 사명이 믿음 이상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신약 성서에서 그가 발견한 것들을 우리와 나눕니다: "*그것은 행동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행동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실용적이고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평화 증진은 수동적이 아니라 능동적이어야 합니다.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것입니다. '지구촌 선교와 평화 특별 헌금'에 도움을 보내주십시오. 우리 모두가 조금씩 기부하면, 큰 기금을 만들 수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희가 믿음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평화에 대해서 이야기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에 평화를 실천하게 하소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